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2월 9일 목요일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강원도민일보	22면	도의회 튀르키예 · 시리아 지진피해 지원성금 기탁	1
江原日報	21면	도의회 튀르키예 · 시리아 지진피해 성금 지원	1
KBS 춘천	온라인	강원도의회, 튀르키예 · 시리아 성금 500만 원 전달	2
G1방송	온라인	강원도의회, 튀르키예 · 시리아 지진 피해 성금	2
춘천MBC	온라인	강원도의회, 튀르키예 지진 피해 돕는 성금 전달	3
연합뉴스		강원도의회, 튀르키예 · 시리아에 지진 피해 성금 전달	4
CBS		강원도의회 '튀르키예 · 시리아 이재민 돕기' 앞장	5
江原日報	02면	[3 · 1절 건강달리기대회] “ 강원도의회 힘찬 레이스 응원 ”	6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강원도의회 3.1절기념 건강달리기 참가의지	6
江原日報	온라인	김기현-안철수-천하람...지지세 드러나는 국민의힘 강원 ...	7
江原日報	03면	국민의힘 당권 경쟁 가열 속 나뉘어지는 강원 표심	8
강원도민일보	03면	국힘 '친윤 vs 비윤' 전대 과열 속 지지세 갈리는 강원 여권	8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안전건설위 업무보고	9
江原日報		[포토뉴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제316회 임시회 제1차...	9
江原日報		[포토뉴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제316회 임시회 제1차...	10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창립 60주년 기념 별정우체국 강원도회 정기총회	11
江原日報	온라인	별정우체국 강원도회 정기총회 열려	11
강원도민일보	03면	"강릉 제2청사 설립, 공약이행 생색내기 안돼"	12
江原日報	03면	“ 경계선지능인 진단 체계 도내 의료기관 조성 필요 ”	13
江原日報		신경호 교육감 "보건장학사 전직발령 취소"	14
江原日報		신경호 교육감 "보건장학사 전직발령 취소"	15
강원도민일보	02면	도내 농지 43.4% 농업진흥지역 합리적 조정 필요	16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레고랜드 관련부서 근무 전 도 고위공직자 숨진 채 발견	17
강원도민일보	02면	진종오 · 이상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 내정	18
스포티비뉴	온라인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 '개막 D-2'...역대 최대 규모	19
江原日報	22면	5천억 투입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육성 미래 100년 기반 다...	20
江原日報	온라인	2년 후 우리 밥상에서 ‘ 강원산 K-연어 ’ 만난다	21

KBS 강릉	온라인	정선 ‘ 가리왕산 케이블카 ’ 강소형 잠재 관광지 선정	22
江原日報	15면	가리왕산 케이블카 ‘ 강소형 잠재 관광지 ’ 선정	22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행정타운 표방 학곡지구 공공기관 유치에 발목	23
강원도민일보	14면	횡성~홍천 송전선로 건설 주민 반발 확산	24
강원도민일보	05면	내일 눈 · 비 앞두고 종일 흐려… 영동 대기건조 산불 주의	25
강원도민일보	04면	연이은 한파에 과수농가 동해 발생 '비상'	25
江原日報	19면	[사설] 올 20개 초교 신입생 0명, 지역 소멸 시작인가	26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도교육청 현안 유연한 대응 필요	27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강원정치권 여야 협치 계속 돼야	28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09일 (목)
인물 22면

도의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지원성금 기탁 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 49명 의원들이 튀르키예·시리아 강진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위로하고, 튀르키예 이재민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회장 이돈섭)에 성금 500만원을 8일 전달했다.

江原日報

2023년 02월 09일 (목)
인물 21면

도의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성금 지원

적십자사에 500만원 전달

강원도의회(의장:권혁열)가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발 빠르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는 지난 6일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 도의회는 49명의 의원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8일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회장:이돈섭)에 전달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시리아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다"며 "희망을 잃지 않고 빨리 평화로운 일상으로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돈섭 회장은 "이번 성금이 국제 구호에 큰 보탬이 될 것이고, 도의회의 실천을 기점으로 도민들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강원도의회(의장:권혁열)는 8일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에 지진 피해 성금을 전달했다.

KBS 춘천

2023년 02월 08일 (수)
강원

강원도의회, 튀르키예·시리아 성금 500만 원 전달

강원도의회가 이달(2월) 6일 강진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 500만 원을 모아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에 전달했습니다.

강원도의회의 성금 전달은 전국 광역의회와 강원도 공공기관 가운데는 첫 번째입니다.

권혁열 도의회 의장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대지진으로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하루빨리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서

G1방송

2023년 02월 08일 (수)
강원

강원도의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성금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강원도의회가 대지진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에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권혁열 도의장은 "6·25 전쟁에서 도움을 준 형제나라 튀르키예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해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하루빨리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02월 08일 (수)
강원

춘천MBC

강원도의회, 튀르키예 지진 피해 돕는 성금 전달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성금 500만 원을

적십자사에 전달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갑작스런 대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힘을 보태고 싶어

긴급 회의를 열고 49명 의원들의 개인 돈으로

성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는

강원도 공공기관 1호로 성금을 받았다며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도민들의 온정을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승호
bsh@chmbc.co.kr

연합뉴스

2023년 02월 08일 (수)
사회

강원도의회, 튀르키예·시리아에 지진 피해 성금 전달

강원도의회, 튀르키예·시리아에 지진 피해 성금 전달
(춘천=연합뉴스) 지난 6일(현지시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8일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성금 500만원을 모아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에 전달했다.
전달식에 참여한 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2.8 [강원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nanys@yna.co.kr
(끝)

CBS

2023년 02월 08일 (수)
강원

강원도의회 '튀르키예·시리아 이재민 돕기' 앞장

강원CBS 박정민 기자
핵심요약

49명 의원, 지원 성금 500만원 대한적십자사에 전달

강원도의회의원들이 8일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지원성금을 전달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지난 6일 강진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를 돕기 위해 강원도의회(권혁열 의장) 49명 의원들이 앞장섰다.

의원들은 의장단,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성금 500만원을 마련해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에 전달했다.

권혁열 의장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대지진으로 하루 아침에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시리아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다. 특히 6.25 전쟁에서 많은 도움을 준 형제나라 튀르키예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해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루 빨리 평화로운 일상으로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CBS 박정민 기자

기타 인터넷, 지면, 방송사 등 20개 이상 언론사 보도 확인

江原日報
2023년 02월 09일 (목)
종합 02면

3·1절 건강달리기대회 "강원도의회 힘찬 레이스 응원" 강원도의회 권혁열 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의회 현관 앞에서 올 3월1일 열리는 3·1절 기념 시민 건강달리기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박승선기자

江原日報
2023년 02월 09일 (목)
사회

[포토뉴스]강원도의회 3.1절기념 건강달리기 참가의지

권혁열 강원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의회 현관앞에서 오는 3월1일 열리는 3.1절기념 시민건강달리기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박승선기자

권혁열 강원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의회 현관앞에서 오는 3월1일 열리는 3.1절기념 시민건강달리기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박승선기자

江原日報
2023년 02월 09일 (목)
정치

김기현-안철수-천하람...지지세 드러나는 국민의힘 강원 표심

'친윤' 국회의원 영향 '김기현' 우세 속
안철수.천하람 지지세력도 커지며 관심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3.8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강원권 표심도 세갈래로 쪼개지는 양상이다.

강원도내 '친윤계' 국회의원이 다수인 점을 고려했을 때 '친윤주자' 김기현 의원의 지지세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철수.천하람 후보 지지세력도 고개를 들고 있다.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를 가르는 예비경선(컷오프) 여론조사가 8일 시작되자 그동안 주자들의 움직임을 관망해왔던 도내 당원들도 서서히 표심을 결정하는 모습이다.

특히 지방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기찬(양구) 강원도의회 부의장은 김기현 후보의 '이기는 캠프'에 합류한다. 이 부의장은 오는 13일 강원선대본부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이기찬 의원은 "강원도 국회의원 대부분이 친윤계인데다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안정화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친윤주자' 김기현 의원을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원선대본부가 조직되면 또다른 의원들의 합류도 예상된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의회 49명 중 43명, 기초의원(비례포함) 174명 중 101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거 당선됐다.

안철수.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여년간 당직 생활을 해온 강대규 변호사는 이준석 전 당대표와 함께 천하람 후보를 지원하고 나섰다. 강 변호사는 지난 5일 SNS에 '앞으로 천하람'이라는 게시물을 등록한 후 개별적으로 천 후보를 지지해왔던 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모습이다. 그는 "선대본부 등 조직은 없고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지지하고 있다"며 "김기현 후보측의 눈치를 보는 일부 지방의원들도 연락을 주는 등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천하람 후보에 대한 샤이 지지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도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수면위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다.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의 강원권 선대위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주축이 됐다. 과거 국민의당 세력으로 국민의힘과 합당하면서 원팀이 됐지만 안철수와 김기현 양강구도로 흐르면서 본격적으로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

한편 국민의힘은 8일과 9일 이틀동안 무작위 추출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본경선에 오를 후보 4인이 결정된다.

江原日報
2023년 02월 09일 (목)
종합 03면

국민의힘 당권 경쟁 가열 속 나뉘어지는 강원 표심

'친윤' 김기현 의원 우세 속 안철수·천하람 지지 그룹 표면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강원권 표심도 세 갈래로 쪼개지는 양상이다.

강원도 내 '친윤계' 국회의원이 다수인 점을 고려했을 때 '친윤주자' 김기현 의원의 지지세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철수·천하람 후보 지지세력도 고개를 들고 있다.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를 가르는 예비경선(컷오프) 여론조사가 8일 시작되자 그동안 주자들의 움직임을 관망해 왔던 도내 당원들도 서서히 표심을 결정하는 모습이다.

특히 지방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기찬(양구) 강원도의회 부의장은 김기현 후보의 '이기는 캠프'에 합류한다. 이 부의장은 오는 13일 강원선대본부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이기찬 의원은 "강원도 국회의원 대부분이 친윤계인 데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안정화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친윤주자' 김기현 의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선대본부가 조직되면 또 다른 의원들의 합류도 예상된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의회 49명 중 43명, 기초의원(비례 포함) 174명 중 101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거 당선됐다.

안철수·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도 점점 커지고 있다.

20여년간 당직 생활을 해 온 강대규 변호사는 이준석 전 당대표와 함께 천하람 후보를 지원하고 나섰다. 강 변호사는 지난 5일 SNS에 '앞으로 천하람'이라는 게시물을 등록한 후 개별적으로 천 후보를 지지해 왔던 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모습이다. 그는 "선대본부 등 조직은 없고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지지하고 있다"며 "김기현 후보 측의 눈치를 보는 일부 지방의원도 연락을 주는 등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천하람 후보에 대한 사이 지지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도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다.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의 강원권 선대위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주축이 됐다. 과거 국민의당 세력으로 국민의힘과 합당하면서 원팀이 됐지만 안철수와 김기현 양강 구도로 흐르면서 본격적으로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

이하늘·정윤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09일 (목)
종합 03면

국힘 '친윤 vs 비윤' 전대 과열 속 지지세 갈리는 강원 여권

김기현·안철수·천하람 '세결집'
내일 당대표·최고위 컷오프
13일부터 순회연설 23일 홍천행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친윤(親尹·친윤석열)과 비윤(非尹) 간 계파 갈등으로 번지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여권도 지지세가 나뉘고 있다.

권성동·유상범·이철규 등 친윤계 국회의원이 다수 포진한 강원도 여권은 친윤 주자를 대표하는 김기현 당대표 후보 지지세가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강릉 지역구 권혁열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기찬(양구)·김기홍(원주) 부의장, 심영곤(삼척) 운영위원장 등 의장단은 김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 부의장은 최근 김기현 후보 캠프 강원본부장을 맡아 세결집에 시동을 걸고 있다. 권 의장은 8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뭘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하지 않겠느냐"며 "친윤 후보는 한 명"이라고 김 후보 지지를 드러냈다. 이 부의장은 "김 후보가 당을 가장 오래 지킨 사람"이라며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 지지세도 만만치 않다. 도내에선 박현식 전 국민의당 도당위원장이 발벗고 나섰다. 8일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원주시회장에 선임된 박 전 위원장은 안철수 캠프 강원도 조직특보로서 안 후보 세결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당내에서 주저 앉히려는 등 움직임이 있지만, 그럴수록 역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강원도에서도 안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한 도의원 역시 "다른 후보들을 뭉개기 위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친윤계) 비판이 많다"며 "옛날처럼 인원을 동원하는 체육관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당원 개개인을 통제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후보는 이준석 전 대표 소송 대리인을 맡았던 강대규 전 국민의힘 강원도당 법률자문위원장 등이 나섰다. 강 전 위원장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김기현도 안철수도 아닌 천하람 후보"라며 "우리당은 '윤핵관 리스크'가 있다. 리스크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야 한다"고 했다.

일부 지방의원들은 강 전 위원장에 천 후보 지지의사를 전하는 등 지지활동을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8~9일 컷오프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10일 본 경선에 진출하는 당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후보 8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을 추린다.

국민의힘은 오는 13일 제주연설회를 시작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는 가운데 강원연설회는 23일 홍천(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다.

이설화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09일 (목)
종합 03면

도의회 안전건설위 업무보고 8일 도의회 상임위에서 열린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기영) 도 건설교통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양숙희 의원이 질의하고있다. 서영

江原日報

2023년 02월 09일 (목)
사회

[포토뉴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제316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박길선)는 8일 제31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최규만(국민의힘.횡성)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답변하고 있다. 신세희기자

江原日報
2023년 02월 09일 (목)
사회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박길선)는 8일 제31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김희철(국민의힘.춘천) 의원이 관련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신세희기자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박길선)는 8일 제31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강원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김기하(국민의힘.동해) 의원이 관련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신세희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08일 (수)
지역

창립 60주년 기념 별정우체국 강원도회 정기총회

홍성우

▲ 창립 60주년 기념 별정우체국 강원도회 정기총회가 8일 원주 강원우정청 대회의실에서 오기호 강원우정청장, 배일진 별정우체국 중앙회장 , 홍봉수 별정우체국 강원도회장, 김기철 도의원, 노조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hsw0120@kado.net

江原日報
2023년 02월 08일 (수)
사회

별정우체국 강원도회 정기총회 열려

별정우체국 강원도회(회장:홍봉수)는 8일 강원지방우정청에서 창립 60주년을 맞아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별정우체국 강원도회가 8일 강원지방우정청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오기호 강원지방우정청장, 김기철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배일진 별정우체국 중앙회장, 홍봉수 별정우체국 강원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홍봉수 회장은 “어느덧 반세기를 넘어가고 있는 만큼 별정우체국도 적극 동참해 새로운 우정사업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새롭게 도약하는 별정우체국 강원도회가 되길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09일 (목)
종합 03면

“강릉 제2청사 설립, 공약이행 생색내기 안돼”

도의회 행정국 업무보고 ‘효과’ 강조

문관현

최승순

원미희

전찬성

강원도의회에서 강릉 제2청사 설립과 관련해 “공약 이행 생색내기가 아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동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관현(태백) 의원은 8일 행정국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2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도민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100명에서 150명 규모 이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갑자기 삶의 터전을 옮기는 직원들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공약 이행을 위해 무분별하게 추진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생색내기 보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2청사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릉 제2청사 설립은 김진태 지사의 영동권 대표공약이다.

정일섭 행정국장은 문 의원의 ‘거주지 지원’ 질의와 관련 “당장 숙소를 건립할 계획은 없다”며 “(이동 직원에 대해선)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최승순(강릉) 의원은 행정국에 “도시개발을 할 때, 지역 특성과 인문학적 요소가 가미됐을 때, 지역 주민들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며 “신청사, 제2청사 등 현안이 있으니 도시계획 직렬의 직원을 채용해 전문성을 살려달라”고 주문했다.

원미희(비례) 의원은 보건체육국 업무보고에서 속초의료원 단축 운영(본지 1월 30일자 5면 등)과 관련, “의료인력은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의료인력 교육과 수급 체계의 문제”라며 “거시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면 해소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윤승기 보건체육국장은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유출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도 문제를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전찬성(원주) 의원은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 “제주도하면 감귤이 떠오른다. 강원도하면 감자와 옥수수다”며 “특별자치도를 기회의 전환점으로 삼아,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설화 lofi@kado.net

江原日報
2023년 02월 09일 (목)
종합 03면

“경계선지능인 진단 체계 도내 의료기관 조성 필요”

도의회 사문위 업무보고

◇정재웅 의원 ◇김시성 의원 ◇김정수 의원

강원도 내 의료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에 경계선지능인 진단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정재웅)는 8일 도 보건체육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경계선지능인 진단을 위한 현장 개선을 주문했다.

정재웅(더불어민주당·춘천5) 위원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가 통과됐지만 행정과 의료기관이 수용할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며 “도가 의료기관의 지도 권한을 지녔고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만큼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승기 도 보건체육국장은 “현장에 적용할 방안을 고심하겠다”고 답했다. 김시성(국민의힘·속초2) 의원은 “지역 의료원 인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했지만 도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수(국민의힘·철원1)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에 운영 경비를 지원해 열악한 의료서비스를 채워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상정된 조례안 8건 중 6건은 원안 가결됐고, 1건은 부결, 1건은 수정 가결됐다. 정윤호기자

江原日報
2023년 02월 08일 (수)
사회

신경호 교육감 "보건장학사 전직발령 취소"

조직개편 통해 줄이기로 한 보건장학사 그대로 유지
"코로나19 아직 종식 안돼...보건장학사 여전히 필요"
A장학사, "도내 고교생 백신접종 사망 교육부에 보고"

강원지역 보건교사들로 구성된 '보건전문직 부당인사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도교육청 앞마당에서 A장학사의 강제전직 발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속보=강원도교육청이 3월1일자로 단행한 보건직렬 A장학사의 전직 발령을 둘러싼 갈등(본보 지난2월1일, 7일자 4면 보도)이 심화되자 신경호 교육감이 8일 "A장학사의 전직 발령을 취소하고 현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신 교육감은 이날 도내 보건교사들로 구성된 '강원도교육청 보건전문직 부당인사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강원도 방역에 큰 역할을 했고 노고가 많았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여러 고심 끝에 조직개편을 통해 줄이기로 했던 도교육청 내 보건 장학사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단행된 인사발령을 전격 취소한 것이다. 신 교육감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장학사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다. 여러 감염병에 철저히 대비하고 관리하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江原日報

2023년 02월 08일 (수)
사회

강원지역 보건교사들로 구성된 '강원도교육청 보건전문직 부당인사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도교육청을 찾아 A장학사의 강제 전직 발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3월1일자로 시행되는 조직개편을 통해 보건 담당 장학사 정원을 줄였고, A장학사를 현장 교사로 발령했다. A장학사는 최근 3년간 도교육청에서 코로나19 등 학교 감염병 대응업무를 총괄해 왔다. 이에 보건 교사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헌신한 A장학사의 노고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날도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장학사는 강원도교육청의 방역대책이 전국 시.도교육청의 모범사례로 꼽힐 정도로 매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했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이같은 노고를 치하하기는 커녕 교사로 전직발령을 단행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소수 직렬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인사 담당자를 문책하고 부당인사로 상처받은 보건교사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A장학사는 이날 그동안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가 제기해온 도내 고교생의 백신 접종 사망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 당시 교육부에 보고했던 이메일 자료를 공개하며 "학생의 사망 당일 오전 A4용지 3장 분량으로 이메일 보고를 했고, 오후에도 유선 및 이메일로 정확히 보고를 했다"고 반박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09일 (목)
종합 02면

도내 농지 43.4% 농업진흥지역 합리적 조정 필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어디까지 왔나

토지재산권·개발 위해 규제완화 시급

도 진흥지역 승인권 특례 반영 요구

5. 농업 분야 규제

농업규제 완화는 환경·산림·군사 등과 함께 풀어야할 핵심 규제사항 중 하나다.

도내 농업 관련 규제면적은 약 440㎢로 전체 규제면적(2만 1890.7㎢)에 2.6%에 해당한다. 농업규제 면적은 도내 4대 핵심 규제 중 가장 작은 면적을 차지하지만 도민들의 토지재산권 행사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타 규제와 함께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로 꼽힌다.

농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농촌환경 정비 등 공간구조 변화 필요성과 농산업 융복합화를 위한 복합적인 토지이용 수요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률적이고 경직되게 법을 적용해 규제대상이 아닌 곳이 지정돼 있거나 시군별 편차가 발생하는 등 불합리하게 규제구역이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도내 농업진흥지역 지정 면적은 4만 4287ha(442.87㎢)로 전체 농지의 43.4%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개발에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일부 농업진흥지역은 지정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흥지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고 있어, 합리적은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업진흥지역 관리규정에 따르면 곡간폭 100m미만 지형은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이 아니지만 도실태조사 결과 도농업진흥지역 중 472.7ha가 해당 지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근 3년간(2019~2021년)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은 0.98㎢로 농업규제 총면적(440㎢) 대비 0.2% 수준에 그쳐 관련 권한 이양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도는 농업 분야 관련 특례로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에 대한 승인권 특례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도조례를 통해 진흥지역 지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없이 지정·해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 신고와 일시사용허가 등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조례로 관련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해 승인·허가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개발사업 추진의 용이성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구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농업관련 규제는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로, 비농지가 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등 불합리하게 적용돼 있다"며 "보전과 개발 두 가치 아래 농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농지 관련 권한과 사무에 대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승환 jeong28@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09일 (목)
사회

레고랜드 관련부서 근무 전 도 고위공직자 숨진 채 발견

오세현

춘천 등선폭포 인근·실종 닷새만
“타살 혐의점 없어, 경위 조사 중”
춘천시장 “시 차원 예우 다할 것”

▲ 춘천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검찰 소환통보를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된 전 강원도청 고위공직자 A씨가 8일 춘천 삼악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A씨를 실은 경찰헬기가 이동하고 있다. 김정호

속보=춘천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검찰 소환통보를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된 전 강원도 고위공직자 A씨(본지 2월 7일자 4면 등)가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신고 닷새 만이다. 8일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춘천 삼악산 등선폭포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은 이날 오후 2시20분쯤 인근 계곡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며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A씨의 가족은 “A씨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귀가하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이보다 앞선 지난 2일 오전 5시쯤 A씨가 집을 나섰으며, 같은 날 오전 7시 30분쯤 춘천 삼악산 등선폭포 등산로 CCTV에서 마지막 행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주로 사용하는 백팩을 착용한 평상복 차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택시와 버스를 번갈아 타며 이동, 경찰이 동선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가 위치추적이 힘든 상황이었다.

A씨는 최근 춘천지법에서 레고랜드와 관련한 참고인조사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정해진 날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지난 2022년 11월 레고랜드 관련 ‘진정 사건’을 접수, 담당 검찰청인 춘천지검으로 보냈다. 진정 내용은 2014년 A씨가 레고랜드 사업 지원 관련 부서에 근무했을 당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A씨가 참고인으로 소환됐으나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심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고인의 사실상 마지막 근무지였던 춘천시청도 오후내내 술렁였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민선 7기 첫 춘천부시장을 역임했다. 소탈하고 정 많은 성품으로 따르는 직원이 많았다. 이후 2020년 1월 강원도로 복귀했으나 그해 1월 초 명예퇴직했다. 춘천시청의 한 직원은 “부시장님께 혼나기도 많이 혼났지만 선한 웃음이 아직도 눈 앞에 선연하다”며 “소식을 듣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

육동한 춘천시장, 이재수 전 춘천시장도 잇따라 수색현장을 찾았다. 수색현장으로 이동 중 비보를 들은 육동한 시장은 “고인과는 1997년부터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며 “성품이 점잖고 여린 사람이었다. 무엇이 그를 이런 선택을 하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춘천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우를 다하겠다”고 했다. 오세현·배상철·신재훈

tpgus@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09일 (목)
종합 02면

진종오·이상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 내정

윤 정부 유일 국제 스포츠 행사
확정시 첫 선수출신 최고책임자
도 토박이 진종오 낙점 의미 커

진종오 이상화

속보=춘천 출신 '사격 황제' 진종오 대한체육회 이사와 '원조 빙속여제' 이상화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공동 조직위원장(본지 1월 16일자 2면)에 내정됐다.

진종오-이상화 투톱 체제의 인선이 최종 확정되면,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각종 국제종합대회에서 선수출신이 대회최고 책임자인 조직위원장을맡게 되는것으로, 이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처음이 된다.

8일 본지 취재 결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공동조직위원장에 진종오, 이상화가 내정, 향후 예정된 총회를 통해 공동 조직위원장 체제 인선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 대회는 전 세계 청소년의 동계스포츠 최고 무대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서 치러지는 유일한 국제스포츠 행사다.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은 이 같은 의미를 담아 젊은 스포츠 스타를 전격 발탁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한국 사격의 간판인 진종오는 춘천에서 초·중·고(강원사대부고)를 졸업한 강원도 토박이라는 점에서 도내(평창·강릉·정선·횡성)에서 열리는 대형 국제 스포츠 대회의 조직위원장 낙점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진종오는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 2012 런던 하계올림픽, 2016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올림픽 사격 단일 종목 최초 3연패(은 2개)를 달성한 최다 메달리스트이다.

진종오가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도전의 길도 자연스럽게 열린다. 현 IOC 선수위원인 유승민(대한탁구협회장)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의 8년 임기가 2024 파리하계올림픽 때 끝나 대한체육회는 내년 3월쯤 IOC 선수위원에 도전할 새로운 국내 후보 1명을 선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상화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금메달리스트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끝으로 은퇴했다. 평창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동계스포츠 스타 이상화의 조직위 합류는 2024 조직위 홍보대사이자 2018평창올림픽 성공개최 주역 중 한 명인 피겨여제 김연아와 시너지 효과를 내 2024대회 글로벌 붐업 조성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IOC와 2024 조직위는 지난 7일부터 개최도시 시군에서 제3차 IOC 조정위원회와 현장실사를 갖고, 재정·인력, 대회 마스터플랜 등을 점검했다. 9일에는 강릉 스카이베이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정을 마무리한다.

박지은 pje@kado.net

2023년 02월 08일 (수)
스포츠

스포티비뉴스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 '개막 D-2'...역대 최대 규모

[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 '장애인 동계스포츠 대축제'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정부의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마스크 프리 대회'로 개회식은 오는 10일 오후 4시 알펜시아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이번 동계체전은 총 7개 종목(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빙상)에 1025명(선수 475명, 임원 및 관계자 550명)이 참가한다.

장애인동계체전 사상 최초로 참가 인원이 천 명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이번 대회는 개폐회식을 포함해 모든 행사와 경기가 정상 진행된다.

아울러 알파인스키(슈퍼대회전/선수부) 번외경기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휠체어컬링 2인조 세부 종목이 신설됐다.

일부 경기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유튜브와 지상파TV를 통해 볼 수 있다.

경기 일정과 결과는 대회 공식홈페이지(http://winter.koreanpc.kr/npg/this-yea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대회 관련 소식은 대한장애인체육회 SNS 등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박대현 기자(pdh@spotvnews.co.kr)

江原日報
2023년 02월 09일 (목)
특집 22면

5천억 투입 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육성 미래 100년 기반 다진다

각종 공모·국책사업 선정 국비 246억 확보 성장 기틀 마련
조직개편 신청사 건립 본격화·승격 60주년 행사 준비 다채
카드형 상품권 발행·크루즈 재개 지역 상경기 활성화 노력

속초시 승격 60주년

속초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짧은 기간 동서고속화철도의 역사적 착공과 지역소멸대응기금 지자체 평가 전국 2위를 비롯,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과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의 공모 선정, ICT 활용 스포츠 콘텐츠 체험시설 유치와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문화도시 선정, 설악동 화쳬마을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등을 통해 국비 246억원을 확보하는 등 미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성장 기틀을 마련했다. 올해는 시 승격 60주년을 맞아 동서고속화철도의 실질적 착공과 역세권 개발, 시청사 신축 등 미래 100년의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동서고속화철도 실질적 착공·속초 역세권 개발 추진 원년=올해부터 2030년까지 5,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속초 역세권 거점 육성형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은 속초시 백년대계를 이끌 승격 60년 이래 최대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의 하나 된 염원으로 민선 6기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된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은 올해 실질적인 착공의 해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이 개최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027년 계획대로 동해북부선과 함께 양대 철도가 동시 개통하게 되면 속초시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은 물론 부산 등 남부지역과도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철도망을 갖추게 된다.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정사업인 만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KR(국가철도공단) 등 국영공기업도 참여해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를 비롯해 70여개의 규제 특례를 받게 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전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투자기업들은 각종 세제·부담금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 대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선도지구 발표 이후부터 대기업들의 투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속초역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KTX 철도를 비롯한 광역교통망과 속초시내 대중교통 체계를 한번에 연계하는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지역 관광산업과 해양·국제크루즈산업의 연계 발전을 위한 MICE복합타운, 관광특화단지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식, 속초항 크루즈 입항, ICT 스포츠체험시설 조성 업무협약식,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속초역세권 개발사업 조감도.

■신청사 건립사업 본격 추진=현 시청사는 1967년에 건립돼 56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이다. 재해 위험이 높고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따를 뿐 아니라 각종 편의시설 부재로 시민들의 접근성이 취약한 실정이다. 속초시는 시민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청사를 이용할 수 있고 행정은 물론 문화·복지·교육 등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종합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청사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 1월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도시국 산하 미래전략과에 신청사 건립팀을 신설하고, 도시계획팀을 합류시켜 사업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먼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숙의 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 신청사 입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착공 전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건축 허가 등 사전 절차를 입지 선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2026년 상반기 중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카드형 지역상품권 출시·다양한 일자리 창출 노력=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선 8기 속초시는 출범 후 제1호 공약인 '전 시민 희망지원금'을 지급하고자 166억원의 재원을 투입, 전 시민의 97%와 등록 외국인에게도 각각 20만원을 지급했다. 속초시는 '전 시민 희망지원금'이 시민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올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 속초사랑상품권을 지난달 4일 본격적으로 발행했다. 속초사랑상품권은 연간 10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과 공공일자리사업, 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 고용 수요와 계층에 맞춰 '핀셋형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기업과 구직자의 구인·구직난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30개 기업체와 800여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3년 강원일자리박람회' 유치를 통해 경직된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통시장, 로데오거리 상점가 등 지역 내 거점 상점가를 집중 육성해 낙수효과를 통한 주변 상권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 특산품 업체와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승격 60주년 기념 다양한 행사 준비=2023년은 1963년 1월1일 시 승격 이후 60주년을 맞이하는 동시에 민선 8기 속초시정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원년으로서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는 해다. 속초시는 끊임없는 발전 속에서 역경과 고난을 극복한 시정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승격과 성장 60년의 주인공인 시민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 100년을 향한 소통·화합·성장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특별한 한 해를 쉽게 기억하고 즐길 수 있도록 시 승격 60주년 엠블럼을 제작, 올 한 해 동안 공문서와 각종 행사·사업을 비롯해 현수막, 홍보물, 굿즈 등에 통일된 엠블럼을 사용함으로써 지속적인 붐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시민은 하나로, 속초는 미래로!'의 시정 슬로건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60개 사업과 속초 전역을 무대로 한 60가지의 이벤트를 선정해 추진함으로써 시 승격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길 계획이다.

■2023년 크루즈 재개와 항로 다변화로 관광 활성화 기대=지난해 10월24일 정부가 코로나19로 2020년 2월 이후 금지됐던 크루즈선의 국내 입항 및 하선관광을 전면 재개한다고 발표한 후 속초시는 국내외 크루즈 수요는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속초항에는 총 6항차의 크루즈가 입항할 예정이며, 향후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 3월13일 입항하는 2만9,000톤급의 월드와이드 크루즈인 아마데아호는 2019년 10월 이후 약 3년 반 만에 국내에 첫 입항하는 크루즈인 만큼 많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시 승격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만큼 속초시는 해양수산부, 강원도 및 강원도관광재단과 연계해 대대적인 환영행사와 함께 하선 관광객에 대한 관광 편의 제공과 크루즈 마케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CIQ 등 크루즈 유관기관과 사전에 긴밀히 협력해 관광객 입·출국 수속, 검역 조치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동서고속철 속초역세권 개발사업이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에 선정되면서 2027년 개통 예정인 양대 철도와 미니 신도시급 역세권 개발은 속초항의 환동해권 크루즈 대표항만 도약에도 시너지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속초시는 이러한 호재들을 기반으로 크루즈산업을 미래도시 속초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속초시는 적극적인 포트 세일즈를 통해 국제항로 개설을 희망하는 선사를 유치, 적시적기의 재개 시기와 운항 항로 등을 결정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 경쟁력이 있는 항만 인프라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그간 항로 활성화의 걸림돌이었던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의 강원도 매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강원도와 협력해 터미널 리모델링 또는 복합터미널로의 변화를 위한 해양수산부 차원의 지원 건의 등 여객터미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함으로써 국제항로는 물론 연안 여객운송도 가능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설악동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본격 추진=속초시는 설악동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26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설악동 재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설악힐링 온천원보호지구를 활용한 관광거점 조성, 쌍천변과 설악산 조망이 가능한 체험형 스카이워크 및 출렁다리 조성, 야외무대 및 미디어월을 포함한 광장형 소공원 조성 등을 통해 관광객이 장시간 체류할 수 있는 거점형 관광 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설악동 재건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실시설계용역,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증가 등 설악동의 지역경기가 활성화되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속초시는 설악동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악동 재건사업을 실시해 설악동이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속초=권원근기자

江原日報
2023년 02월 09일 (목)
정치

2년 후 우리 밥상에서 '강원산 K-연어' 만난다

양양 연어 스마트 양식 산업단지 10개월만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마쳐
동원산업, 오는 8월 착공.2024년 준공.2025년부터 연어 대량생산

양양 연어양식산업단지 조감도

양양에 조성 예정인 '대서양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 착공이 가능해졌다. 강원도는 연어 양식 산업화를 위한 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고 보고 2025년부터 강원산 K-연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8일 강원도에 따르면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 연어 양식산업단지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 원주환경청은 지난해 해안사구 보전, 해안침식 저감, 겨울철 조류 조사 보완을 요구했으나 도와 양양군, 동원산업이 협력체계를 가동, 총력대응하며 10개월 만에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동원산업은 케이스마트양식 주식회사를 설립해 양양 현북면 일대 11만 6,818㎡에 친환경 대서양연어 양식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총 사업비는 2,050억원이다. 도는 오는 5월까지 강원도 지방산업단지계획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양 연어 양식산업단지를 최종 승인 고시할 방침이다.

8월 착공해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25년 본격적으로 대서양연어를 출하한다는 것이 동원산업의 계획이다. 목표 생산량은 연간 2만톤으로 국내 연간 수입량의 26% 수준이다.

강원도는 강원형 K-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완성을 위해 연어 스마트양식 종합 컨트롤타워이자 실험.실증기관인 테스트베드를 2024년까지 강릉에 건립해 연어 양식어가와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국내 연어 수입량이 7만6,000톤(약 7,300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해 연어 양식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하고 연관 전후방산업을 육성, 동해안을 아시아 최대.최고의 연어 양식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최성균 강원도 환동해본부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에 힘입어 연어 스마트양식 산업의 청신호가 켜진 만큼 미래 먹거리 산업을 견인할 성장동력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KBS 강릉

2023년 02월 08일 (수)
강원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 강소형 잠재 관광지 선정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3 강원도 강소형 잠재 관광지 발굴·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선군은 1억 5,0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받는 데 이어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가리왕산 케이블카와 주변 관광지에 대한 기반시설 개선과 관광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 사업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창환

江原日報

2023년 02월 09일 (목)
지역 15면

가리왕산 케이블카 '강소형 잠재 관광지' 선정

국비 1억5천만원 지원 … 정선군 인프라 개선 등 추진

【정선】동계올림픽 유산인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잠재 관광지 발굴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정선군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대표할 국민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굴해 체계적 마케팅 지원을 하는 2023 강원도 강소형 잠재 관광지 발굴 육성사업에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선정됐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1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가리왕산 케이블카와 주변 관광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인프라 개선, 국내외 여행사 연계 관광상품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잠재 관광지 선정을 통해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관광시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 내 힐링 명소인 정암사 수마노탑, 함백산 만항재, 고한 마을호텔 18번가, 하이원리조트, 화암동굴, 정선5일장, 로미지안가든 등 웰니스 관광자원을 연계한 풍요롭고 다채로운 연계 관광상품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선의 가장 큰 장점인 산림을 활용한 웰니스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대한민국 최초의 산림형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과 9개 읍·면 권역별 정원도시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환 군 관광과장은 "가리왕산 케이블카와 지역 내 관광지를 연계한 차별화된 관광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에 지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힐링 관광지 국민고향 정선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석기자 kim711125@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09일 (목)
지역

행정타운 표방 학곡지구 공공기관 유치에 발목

오세현

유치실적 전무 행정절차 차질
대규모 아파트 단지 전락 우려
시의회, “타 지역 기관 유치를”

행정타운 조성을 표방했던 학곡지구가 완공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행정기관과 학교를 단 한 곳도 유치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전락하게 됐다.

8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는 학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지난 2021년 9월 부지조성과 기반 공사를 모두 마무리했지만 아직까지도 준공고시, SPC 청산 등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당초 계획했던 공공기관 유치와 학교 조성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곡지구는 동내면 학곡리 산12 일원에 32만㎡ 규모로 조성됐다. 공동주택과 공공청사, 상업·단독주택 등이 포함됐다. 사업 초기 때까지만 해도 춘천시는 학곡지구가 중앙고속도로와 경춘고속도로 나들목에 위치해 있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점을 활용, 이 곳을 행정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춘천 남부권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도 이뤄질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부지 단가가 높은 데다 도심권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했다. 그사이 청사 이전을 논의했던 춘천교육지원청은 강원대 후문으로 이전했고 석사동 이전을 추진하던 춘천지법·춘천지검은 청사 이전 자체가 삐걱이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 역시 당초에는 유치 대상 기관 중 한 곳이었으나 물거품이 됐다.

현재까지 학곡지구 내 조성이 확정된 곳은 아파트단지·단독주택이 전부다. 행정타운 조성을 염두에 두고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한 터라 지역사회에서는 “행정타운은 사라지고 아파트촌만 남게 됐다”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초교 신설마저 삐걱이면서 학곡지구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까지 학곡지구 세대수는 2700여 세대도, 학교 신설 기준이 되는 최소 4000세대 이상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추후 개발 수요를 본 뒤 초교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춘천시는 학곡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학교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공공기관 유치가 공전을 거듭하자 춘천시는 올해 안에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전을 타진하던 기관들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운기 시의회 경제도시위원장은 “이제 지역 내 기관 이전·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업하고 육동한 시장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외부 기관을 춘천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tpgus@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09일 (목)
지역 14면

횡성~홍천 송전선로 건설 주민 반발 확산

한전, 특별지원방안 공개 불구
속실·신대·봉명리 보이콧 선언
현실성있는 보상협상 강력 요구

한전이 추진하는 500㎸ 송전선로 횡성·홍천구간 건설사업이 송전탑 경과지 내 반대여론과 현실성있는 보상협상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한전은 8일 횡성군 청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500㎸ HVDC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서부1구간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한전측은 설명회에서 송전선로 예정지인 속실리, 신대리, 봉명리 마을주민들이 보이콧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향후 경과지 마을에 대한 특별지원방안을 공개했다.

한전은 송전선로를 총 4개구간으로 나눠 환경부와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 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밟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이르면 오는 20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송전탑 건설예정지 주민들은 송전탑으로 인한 주거여건 악화 등을 들어 현실성있는 보상협상 없이는 사업추진을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 항의했다.

횡성송전탑백지화위원회도 행사장 앞에서 '생존권 파괴하는 송전탑 결사반대'를 내걸고 사업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한전은 이후 2~4구간 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주민반발이 사업추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부구간 송전선로 경과지는 총 82.46㎞로 평창 봉평면 진조리에서 홍천군 서석면 어론2리(1구간)~횡성군 공근면 상창봉리(2구간)~홍천군 남면 유치2리~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명성1리(3구간)~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1리(4구간) 구간을 관통한다. 철탑은 1구간 36기, 2구간 49기, 3구간 45기, 4구간 29기가 설치된다. 한편 한전은 서부구간 내 35개마을과 보상협상을 벌여 횡성 4개 마을 등 19개마을이 협상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박창현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09일 (목)
사회 05면

내일 눈·비 앞두고 종일 흐려… 영동 대기건조 산불 주의

9일 강원도 전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강원기상청은 이날 제주도 남쪽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강원영동의 경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대기 건조는 오는 10일 도 전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해소될 전망이다. 9일 도내 아침 최저기온은 영서 -9~-4도, 영동 -3~1도, 낮 최고기온은 영서 8~10도, 영동 5~8도로 예보됐다. 김정호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09일 (목)
종합 04면

연이은 한파에 과수농가 동해 발생 '비상'

연이은 한파로 강원도내 영서 일부지역 과수 농가를 중심으로 꽃눈 동해(凍害)가 발생,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강원도농업기술원은 올해 춘천, 원주, 홍천, 양구, 화천, 영월, 강릉, 양양 등 도내 8개 시군, 약 50개 농가를 대상으로 사과, 복숭아, 포도, 배 4품목에 대한 동해 샘플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 결과 가져온 가지에서 발견된 꽃눈 2239개 중 약 550개에서 동해가 확인됐다. 특히 사과, 배, 포도는 피해가 거의 없었지만 복숭아의 경우 주 재배지인 홍천과 화천에서 가져온 샘플에서 피해율이 50% 내외로 나타났다.

도농기원은 지난해까지는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아 과수 농가에서 동해가 많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올해는 1월부터 한파가 이어지면서 동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최근 날이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하면서 꽃눈이 자라다가 추위를 만나 동해를 입을 수 있어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가들도 서둘러 대비를 하고는 있지만 꽃이 피기 시작하는 3월까지는 피해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화천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이모(54)씨는 "올해는 1월 초부터 계속 날씨가 추워 꽃눈이 피해를 입었을까 걱정이 크다"며 "계속 신경 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정호

江原日報
2023년 02월 09일 (목)
사설/칼럼 19면

올 20개 초교 신입생 0명, 지역 소멸 시작인가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약 20만명 줄었다. 2020년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다.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5년 전 1명 아래로 내려간 뒤 끝을 모르고 곤두박질치고 있다. 나라 전체가 '인구 절벽'에서 추락 중이다. 15년 전 인구 감소가 시작된 일본도 2005년 1.26명에서 소폭 올라가 1.3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급격한 감소세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강원도는 더욱 심각하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본격화된 저출산 풍조까지 겹치며 1970년 186만6,928명에 달했던 도내 인구는 2022년 기준 153만6,487명이다. 그 여파는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강원지역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적지 않은 학교가 통폐합 위기에 몰리고 있다. 지역 소멸의 전조다. 초등학교의 절반가량이 '작은학교'로 쪼그라들었고, 도시지역의 학급 수도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전교생 수 60명 이하 작은학교, 전체의 41.7%
인구 감소 심각, 2022년 기준 153만6,487명
노동·교육·복지 정책 새롭게 설계해야

올해 전교생 수가 60명 이하인 '작은학교'는 전체 643개교 가운데 268개교로 41.7%에 이른다. 가장 심각한 건 초등학교다. 368개 초교 중 49.7%인 183개교가 전교생 60명 이하다. 2040년이 되면 '작은학교'인 초등학교의 비중은 61.4%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자료도 나와 있는 상태다. 중학교는 41.3%(66개교), 고등학교는 16.3%(19개교)가 작은학교에 속했다. 당장 통폐합 위기에 처한 학교도 적지 않다. 올해 신입생이 아예 없는 초등학교는 20개교, 단 1명뿐인 학교도 20개교나 됐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부동산과 일자리, 교육, 복지, 이민 등 모든 정책을 출산 친화적 관점에서 설계하고 국민 총력전을 벌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인구 감소의 파장은 하나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영역들과 연쇄적으로 결합하면서 전혀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에 대한 미래 대응의 설계도를 그리고 그에 맞춰 우리의 생활과 체제를 변화시켜야만 한다.

이를테면 고용 연장에 대한 인식이 정부 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제도의 개정 정도에서 그쳐선 안 된다. 어마어마한 사회적 파장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생산성이 낮아지는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선 연공제가 폐지되고 평가와 임금 체계가 새롭게 재편돼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인다. 그리고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직업 재교육도 필요하다. 이는 지금의 입시 교육 중심에서 평생교육으로 교육 정책이 전환되고, 대학의 역할과 운영에도 대대적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재교육을 위한 고용보험과 고용 연장이 어려운 저숙련 직군을 위한 복지 지원도 뒷받침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렇게 노동·교육·복지 정책의 근간을 새롭게 구성하지 않으면 인구 감소는 재앙으로 다가온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09일 (목)
사설/칼럼 19면

도교육청 현안 유연한 대응 필요

-인사 발령 및 초교 신설 갈등 속출 강원교육 불안감 안돼

강원도교육청이 안팎으로 시끄럽습니다. 내부 역량을 결집하는 인사 발령과 관련해 연말연시를 전후해 잡음이 끊이지 않으며 춘천시 학곡지구의 초등학교 신설 문제 그리고 최근의 심각한 폐교 상황과 영어학교 추진에 따른 논란에 이르기까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강원특수교육원 입지를 놓고 도시간 경쟁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을 비롯한 더 중요한 현안에 집중하는 대신 안팎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에 대응하기에 바쁜 인상을 주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소통과 치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사안도 있어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교육행정에 대한 불안한 시선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엊그제(2월 7일) 행정 편의적인 인사 및 오류로 인한 인사 정정 발령 문제를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뒤늦게 내신을 반영하는 정정 발령으로 인해 교사 불신과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입니다. 통상적으로 10년 임기를 보장하는 교육전문직을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일선 교사로 배치함으로써 소수 직렬에 대한 차별이라는 부당성도 제기됐습니다.

도유아교육진흥원이 설립된 춘천 본원 이외 영동권 분원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특수교육원을 유치하기 위해 춘천, 원주, 강릉 3개 도시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대개 과열과잡음을 일으키는 이유는 과정과 원칙이 불투명하고 부정확하며 불합리한 경우이므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춘천시와는 학곡지구의 초등학교 신설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2700세대가 들어서는 학곡지구에 1만3000㎡의 학교 부지로 확보하고 초등학교 신설을 요청했지만, 도교육청은 세대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거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현행 기준에 부합하진 않아 무리한 점은 있더라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인구는 적고 면적은 넓은 교육환경을 고려해 학교 신설은 앞당기고, 폐교는 늦추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특례 제시 등 대안이 필요합니다.

신경호 교육감은 안으로 구성원 화합을 통해 교육에 역량을 쏟도록 하고, 밖으로는 지역사회와 긴밀한 공조로 불필요한 갈등이 나오지 않아야 시민들이 강원교육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2월 09일 (목)
사설/칼럼 19면

강원정치권 여야 협치 계속 돼야

-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발의 성과, 해결할 과제 남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강원도 정치권의 올해 단체 1호 법안으로 발의됐습니다. 도 정치권을 포함한 총 86명의 여야의원이 대거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법제사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여야와 정파를 초월한 협치가 빛을 발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법 완성과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를 위해서는 갈 길이 멉니다. 정치권의 협치 행보는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체 의원 22명 가운데 절반인 11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 중 행안위 법안 1소위(9명) 소속 의원만 5명입니다.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행안위 심의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사위 소속의 경우 유상범 의원을 비롯해 권인숙·김남국·최강욱·전주혜 의원 등 6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우상호·정성호·윤호중·김병주 등 도출신·연고 의원들도 대거 동참해 힘을 보탰습니다. 여권 당권 주자인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도 이번 개정안에 동참했습니다. 도와 도 정치권이 여야와 지역을 넘나들며 활약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은 앞서 의원총회에서 개정안 조기 통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여야 의원들에게 법안 발의 당위성 및 동참을 요청하는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도내 여당 의원들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란 점을 강조하며, 야당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선 것은 여야 협치 차원의 입법 전략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가교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여·야 협치의 결과라며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도와 도정치권의 협치는 이미 강원특별자치도 정부 지원위원회 설치 과정에서 발휘됐습니다. 당파를 초월한 협력 시스템이 작동돼, 재석 의원 230명 가운데 228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성과를 끌어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국비 9조193억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도내 여야 의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중앙정치 이슈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서더라도 강원 현안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 도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룬 성과보다 함께 해결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개정안 국회 통과와 폭넓은 자치권 확보가 그것입니다. 정파를 초월한 협치 행보를 계속 해야하는 이유입니다.